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화

2015년 8월

<국문초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소재한 조선족 초등학교 4곳의 4, 5학년 학생 400명을 유의표집 하여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척도, 자아존중감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통해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고 여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없지만 부모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남, 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도록 부모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시기에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워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가설	5
4. 연구모형	6
5.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양육태도	8
2. 자아존중감	11
3. 학업적 자기효능감	16
4.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18
5. 선행연구 고찰	2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4
1. 연구대상	24
2. 연구절차	24
3. 연구도구	25
4. 자료의 분석	28
IV. 결과 및 해석	29
1.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9
2.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4
V. 논의 및 결론	39
참고문헌	44

<Abstract>	56
부록목차	59

표 목 차

표 III-1.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5
표 III-2.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7
표 III-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7
표 IV-1.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29
표 IV-2.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	30
표 IV-3.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0
표 IV-4.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	31
표 IV-5.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2
표 IV-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33
표 IV-7.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34
표 IV-8.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	34
표 IV-9.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5
표IV-10.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	36
표IV-11.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6
표IV-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38

그림 목차

그림 I. 연구모형	6
그림 IV-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존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분석	33
그림IV-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존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분석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아존중감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소중한 덕목중 하나이다. Tony Humphreys(2006)는 ‘8살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朱步冲(2013)은 2012년 9월의 《중국도시주민행복감연구보고서》에서 참여자의 32%만 “행복하다”, 50%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 사람들의 낮은 행복감을 의미하며 중국 사람의 낮은 행복감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다는 尹紅霞 외(2010)의 연구를 주목하게 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어느 시기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박영애(1995)는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자기 특성에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김춘경, 김미화(2005)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황미진, 2010; Pelham & Swann, 1989),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력이 높고(윤하기, 1996; 장경수, 1996;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여(Coopersmith, 1967), 불안과 무력감, 우울증상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Pyszczynski & Greenberg, 1987; Tennen & Herzberger, 1987)을 보인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 낮은 학업 성취, 물질 남용, 섭식장애, 청소년 임신 등의 사회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최

미영, 2009; 황미진, 2010; Mecca, Smelser, & Vasconcellos, 1989; Scheff, Retzinger, & Ryan, 1989).

메디컬투데이(2009) 박엘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King's College 런던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은 성인기에 비만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은 30세경이 되면 살이 찌는 가능성이 높지만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면 급증하는 비만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미영(2009)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 중에는 만성적인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학교생들은 말로 표현하기보다 때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발작적으로 화를 내거나 싸우는 행동으로 우울증을 표현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를 갖는 아동과 청소년의 60% 이상이 1년 및 5년 후에 이루어진 추수연구에서 여전히 우울장애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에 높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와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다(Coopersmith, 1967). 부모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존재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윤하기, 1996),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장경수, 1996). 특히 초자아가 발달하는 아동기에는 아동이 자신을 부모와 동일시하고 중요한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습득하므로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김혜경, 2009; 정옥분, 2004). 그러므로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을 가지는 만큼 자녀가 책임감을 갖게 되며(권혜경,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충분한 애정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을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이 보인다(정원식, 1984).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관련된다(范乃茹, 2010; Schaefer, 1965).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애리, 1999). 이는 관찰자에게는 거칠거나 애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는 전혀 다

르게 해석될 수 있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실제적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 주어도 자녀가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김성연, 1981). 주영돈(2000)은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자녀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김혜경(2009), 우미경(2008), 임영희(2007), 장미영(2006), 최미영(2009)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王蓮(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일한 양육태도라도 성별과 지역의 다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張雪娜(201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가 높고 여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는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아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수용과 애정으로 차있기에 딸이나 아들에 대한 관심이 같음을 의미한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는 성격의 틀이 형성되고 자아의 개념이 싹트며, 학급 집단에 참여하여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고,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갖추어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이다(오경준, 2000). 이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학업 성적이고(張雪娜, 2013), 학업성적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錢珍, 2008). 김아영, 차정은(2003)도 학습 성취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1986)을 말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과제를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경향(김선순, 2012; Bandura & Schunk, 1981)이 있으며, 반면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김다솜, 2013). 이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변수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이끌며(김아영 등, 2001; Bandura, 1977; Schunk, 1991), 아동의 신념에서 시작하여 실제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Pajares, 1996).

Zhang과 Richarde(1999)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송인섭(1998)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은 성취의욕이 낮고 학습활동에 위축되는 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더 긍정적이며 원만한 학교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다양한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이나 또래의 경험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높여주기 등 활동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부모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정정애(2008)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에 매우 밀접한 관련과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학습자들에게 확실적인 공부와 성적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부여와 목표설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영선(2010), 권영희(2009), 유미영(2010), 장경선(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은 부모의 지지를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박기중(2000), 錢珍(2008), 岑翠(2005), 王有智, 王淑珍, 歐陽倫(2005)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박영옥(2008)의 연구에서 성별차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 대해서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이나 중국선행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런 연구결과를 연변의 조선족 초등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양육태도, 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급변하는 중국사회에서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연구가설

- 가설 1-1. 남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2. 여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1. 남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2. 여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모형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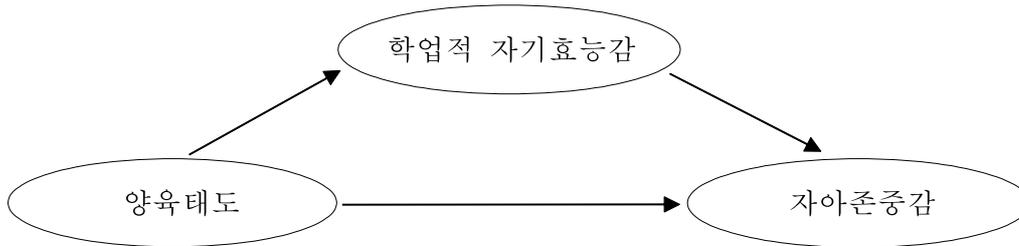


그림 I 연구모형

5. 용어의 정의

가.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Willem A. Arrindell and AstaA. Engebretsen.(2000)가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my memories of upbringing'의 스웨덴 동의어인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인 EMBU-short 척도로, 유미영(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EMBU(Arrindell et al, 2000)척도는 총 23문항이며 애정(emotional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등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거부와 과보호 하위요인의 문항은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부와 과보호는 점수가 낮을수록, 애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내·외현적인 행동 및 반응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

게 지각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의 10문항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문항과 부정적 의미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할 줄 알고 자신감, 자부심을 겸한 말과 행동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총 28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응답은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Bandura,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포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부모는 아동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임에 틀림없다. 이미란(2004)은 부모-자녀의 초기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 등을 비롯한 성격형성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 발생에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는 성격발달과 지적, 정서적 특성, 사회적 성장 및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김춘경 외(2002)는 양육태도란 부모의 양육행동의 근간이 되는 양육에 관한 기본신념과 가치, 의사결정방향 등을 의미한다. Fishbein과 Ajze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 하였다. 또한 최외선 외(2006)는 양육태도란 부모 자신이 양육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가치체계의 표현으로서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방식과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외, 중국 학자 唐凱晴(2014), 張萌, 陳英和(2013)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신념과 행위의 모듬으로 최대의 범위에서 한 인간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의 건강여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유경(1998)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특성, 태도,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심리적 태도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순애(2003)는 부모양육태도 또한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보다는 양육의 객체인 자녀가 그들 부모의 태도를 그들의 심리적 장(field)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연(1981)은 자녀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들이 보는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보고하였고,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Katkovsky, 1967) 자녀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육태도의 측정은 부모가 지각하여 측정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뉘지만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게 지각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선 실제 행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보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주영돈, 2000).그 외, 많은 연구자들(김성연, 1981; 권도영, 2003; 윤선희, 2005; 이숙, 1998; 최경순, 1992; 함미영, 2005; 范乃茹, 2010; Katkovsky, 1967; Schaefer, 1965)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양육태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서영(2012)의 양육태도로 정의한다. 즉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내·외현적인 행동 및 반응양식을 의미하며,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자녀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에 S. Freud가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키면서부터였는데 Freud학파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유아초기의 과업인 수유, 이유, 대소변 훈련 등의 방법과 시기가 유아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미영(2010), 황혜자, 최윤화(2003) 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몇 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하려는 시

도가 대두되었으며 방법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고 밝혔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양육태도를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다시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와 적극적 거부로,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익애형과 맹종형으로 분류하였다. Symonds는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임상사례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유미영, 2010).

반면에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신생아부터 청소년 이전의 장기간 동안 연구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원형모형(circumpex model)을 제시하였고 크게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Schaefer의 가설적 모형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애정-거부 차원에서 부모의 적대심과 공격성, 무관심과 무시라는 두 개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싫어하고 비난하거나 적개심을 품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귀찮게 여기며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지각하게 된다. 애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아동 중심적이고, 자주 설명을 해주며 훈육방법으로는 체벌 대신 상을 사용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율-통제차원은 엄격함과 허용성이라는 양극적인 차원을 형성하는데 엄격한 태도는 매우 많은 규정과 금지를 제기하고 강요하는 태도이다. 허용적인 태도는 거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녀는 거의 부모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자각하게 된다. Schaefer는 30여년 동안의 기록에 의거하여 부모태도 연구도구(PARI: The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다(유미영, 2010; 황혜자, 최윤화, 2003).

Parker, Tupling과 Bronw 등(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첫 번째 추출된 것은 양극 차원으로 한쪽은 애정, 감정적 온정, 공감과

친밀감에 의해 정의되고 다른 한 쪽은 감정적 냉정, 무관심 또는 냉담, 무시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인 역시 양극 차원으로 한쪽은 통제, 과보호, 간섭, 과도한 접촉, 어린 아이취급과 독립적인 행동의 저지에 의해 형성되고, 과보호의 존재 혹은 부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유미영, 2010).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식(1975)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대칭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차원을 제시하여 아동의 성격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원영(1983)은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한종혜(1980)는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김재은(1987)은 한국가족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의 3차원으로 추출하였고, 이숙(1988)은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반면,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關穎(1994), 林磊(1995)은 부모양육태도를 해결, 엄격, 애정, 제약, 허용과 합리적인 지도, 해결, 제약, 무시, 애정의 5요인으로 추출하였고, 劉金花(1991), 陶沙(1994)는 거부, 엄격, 애정, 기대, 이면, 다면과 애정, 권위적인 통제, 무시, 허용, 제약, 차이의 6요인으로 추출하였다(張雪娜, 2013). 그 외, 金河岩, 許偉(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온정-이해, 처벌-엄격, 권위주의적 통제, 거부-부정, 과보호, 편애의 6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태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애정, 거부, 과보호의 하위요인을 위주로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규명하였다.

2. 자아존중감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제르맹 뒤끌로(200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 가치를 인식함으

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라고 정의하였다, 강나정(200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나 가치 판단이라 정의되며,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발달된다. 송현주(2009)는 자신에 대해 알고 자신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정의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자아존중감 척도(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SEI)로 자아존중감을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첫째, 자아존중감은 세부적이거나 일시적 변화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성, 연령, 상황 등 다양한 경험영역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자아평가는 개인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자신의 수행, 능력, 태도를 검토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결정하게 되는 판단과정이라는 것이다(임영희, 2008).

Watkins(1980)는 일상적인 대화나 성격이론에 있어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으로 정의하였고,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로운 것, 즉 현존하는 자신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지 않는 자신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임영희(2008)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또한,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오만함,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아니라고 하였다.

朱智賢(1989)은 자아존중감은 자아상(신체상), 자아개념(정신적), 사회적 개념(문화적)을 포함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자각의 총합이라고 보았으며, 顧明遠(1990)은 자신의 능력 및 사회적 수용의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하였고, 林崇德(1995)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개념을 지각하는 가치의 상대적인 정도로 정의하였고, 魏運華(1997)은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 항상 변화하는 축적물의 감정적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 김경연(1987)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 감정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조원성(1996)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지적·정의적·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판단 혹은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楊麗珠(2005)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 및 이에 따른 정서를 포함하는 판단의 개념으로, 송인섭(1998)은 자기에 대한 중요한 느낌으로서의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성미옥(2003)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 평가 혹은 자기 판단이며, 둘째로는 구체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개념으로, 셋째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 특성을, 넷째는 자신을 평가할 때 강조하는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측정도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할 줄 알고 자신감, 자부심을 겸한 말과 행동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나. 자아존중감의 발달

자아존중감의 형성과정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만2세경부터 나타나는 자조기술(self-helpskills)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된다. 밥 먹기,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 일상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동은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신뢰감은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송명자, 2008).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저술과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그리고 관심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성공은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개인적 성공과 지위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역에서의 달성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가치와 포부에

따라서 경험들을 해석하고 수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개인이 자아존중감의 손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제와 방어가 있는데 개인의 자아존중감 손상이나 가치 저하에 반응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은 무력감, 불안 등의 경험을 줄이고 개인적인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영희, 2003).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정은 우선 주변 인물로부터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해 가는 평가과정과 주변 사람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희봉, 2003).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대하여 Erikson은 아동기(6~12세)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기초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만약 순조롭게 근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소외감,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최은영, 1998). 반면에 Piaget은 각 발달 단계의 연령은 환경의 여건에 따라 빠르거나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발달의 시기는 각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극히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양육방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Stair도 자기 존중의 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체험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의 존재가치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과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정종재, 2001).

Jaffe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이 자아평가의 과정에 의해 유아기로부터 아동기에 걸쳐 나타나고, 부모나 교사가 자녀들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격려해 줌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는 부모, 친구로부터 외모, 능력에 대한 평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획득하면 그 아동은 의욕이 넘치고 도전적이며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응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윤희봉, 2003). 또한 자아존중감은 지속성을 지닌 개인적 성향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환경적 사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자아평가의 가변적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여 청소년 후기까지 자아존중감은 어느 정도 변화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현주, 1990).

이와 같이 주위 환경에서 자신이 지각한 평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자아존

중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미경, 2009, 재인용).

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andura(196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하였다(임영희, 2008). Coopersmitf(1967)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중요한 타인인 부모나 교사, 동료 또는 친척 등의 영향이 개인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상로(1979)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 또는 사회적 욕구 등이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전수길(1991)은 개인의 판단과 타인의 기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혜경, 2009; 임영희, 2008).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독립되어 있으며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Rogers(1959)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통해 자기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Rogers(1974)는 자신이 지각하는 자아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자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만일 두 자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개인은 부적응이 되어 결과적으로 불안, 방어,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임영희, 2008).

또한, 실제적 자아(realself)와 이상적 자아(idealself)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실제적 자아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자아이고, 이상적 자아는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자아이다.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적응문제를 보이기 쉽다.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기에 개인의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만약 아동이 부모, 형제,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적응문제를 보이기 쉽다. 만약에 이런 평가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면 유기체와 자아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므로, 특히 아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나 양육자가 유아나 아동의 실패나 실수에 벌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양육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9).

이상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가운데서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정하였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개념으로부터 발전하였으며,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Bandura, 1997, 1986). 김아영(2001)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였다. 錢珍(2008)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자기효능감이 학습 분야에서의 표현으로 학습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로 자신 있게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기보다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신뢰이며, 이는 인지적인 개념으로써 다분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이미현, 김정규, 2012).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 영향력이 특수 영역·과제에 전이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점차 영역·과제별의 독특성을 수반하는 특수한 믿음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이 강조되면서(김아영, 2004), 영역별로 자기효능감이 갖는 특수성에 기반 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세 가지의 일반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이미현 외, 2012). Paires(1997)는 자기효능감이 특정 과제의 특정 능력에 대한 상황 특정한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보았다.

Bandura(1986,1993)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Pintrich & Groot, 1990)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다(Zimmerman & Martinez-Pons, 1990). 김아영과 박인영(2001)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의 타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요인이 산출되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기존의 일반적 척도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두 구인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학업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포함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형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가정환경은 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문화생활 공유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한 정서적·정보적 지원은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희정, 1993).

김아영(2004)은 Bandura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에게 성취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 특정 과제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신념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 자신이 작은 일에서라도 직접 성취경험을 겪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대리적 성취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신과 능력이 비슷한 타인이 성취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교사의 언어적 설득 또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에게 언어적 설득으로 또 직접적인 행동으로 학생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대처 훈련을 통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의 불안과 초조함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기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등은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4.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가.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남·여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어머니행동을 애정적·성취적·합리적이라고 지각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원영(1984)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가 퇴행적이고 의존적인 사회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으며, 이미정(1987)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명확한 제한을 설정해주며, 보다 많은 반응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친밀감 있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程學超, 谷傳華(2001)는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면 아동은 적극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지만, 반면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

는 양육태도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언행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허용형 양육태도는 엄격형 양육태도에 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외, 김희경(199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 통제적-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오순환(1991)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원영희(1991)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의 온정적 태도와 정적상관을, 부모의 거부·권위주의적인 태도와는 부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경(1995)은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개념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숙(1997)은 아동의 가정적, 도덕적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능력적, 신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영향보다 아동교육기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자(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칭찬하는 아버지의 수용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송기현(2005)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장미영(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애정·자율·성취·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장미숙(2008)은 초등학교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친애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우미경, 200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다.

나.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1999).

황혜자와 최윤화(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개방·자율로 지각하고 또한 거부보다는 애정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陳玉珠(2013)도 부모의 애정, 온정, 이해, 수용하는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제, 엄격, 거부, 비난하는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예측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기종(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唐凱晴 외(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錢珍(2008), 王有智, 王淑珍, 歐陽倫(2005)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 또한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岑翠(2005)는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가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의 여부가 자녀의 인격 형성 및 긍정적·부정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긍정적인 인격체, 자신감 있게 양육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하영화(2009)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계가 있

으며 자녀가 부모의 태도에 반응해서 그들 나름의 발달을 도모해 나간다고 보는데, 이는 부모가 일차적 사회화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며 자존심을 형성하기도 하고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Gurney(1987)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개선에 효과가 있어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만큼이나 자아존중감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윤미, 2003; 이희정, 2009).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학업성적이고(張雪娜, 2013), 학업성적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錢珍, 2008). 하영화(2009)의 정의에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Peterson & Stunkard, 1992),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Owen & Forman, 1988)이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한다.

강희경(2000)은 아동 개인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환경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강향옥(2002), 강희경(2000), 박병금(199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환경이나 경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 형성과 평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가치의 변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등을 제공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여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mmerich(196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서열과 관련지어 연구한 결과 어머니는 아들, 딸 모두에게 보호를 많이 하고 제한을 적게 했으나,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제한을 많이 했다고 보고하였다. Noller(1980)는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Maccoby(1980)는 Noller와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더 허용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과 과보호, 거부 3개 요인구조로 볼 때 이은진(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아버지 돌봄과 아버지 과보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여자 아동은 아버지의 애정적인 돌봄의 양육태도를 대체로 높게 지각하며 남자 아동은 아버지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魏運華(2004)는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시기에도 건립되는 단계이므로 성장모형이 상승추세이고 12세를 한 인간으로서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건기로 보았다. 실제로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리 지각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나 교사에 의해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장 이후에도 학교나 가정 또는 사회에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1990년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사람인 Steinberg(1990)는 행동통제의 부재는 충동통제와 사회적 책임의 결손을 가져오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에게 심리적 자율성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다시 아동의 자기-신뢰와 자신감의 결손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김혜경, 2009).

또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Bandura, 1986)으로 인식됨에도, 倪士光, 徐繼紅, 叶霖(2012), 田芊, 鄧士昌(2011), 唐凱晴 외(2014), 王超超(2010)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습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습에 관한 상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미영(2010)은 부의 양육태도에서는 부분매개하고 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唐凱晴 외(2014)는 애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부분매개를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순점(2005)의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고 아동 중심이 되어 허용 적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된 자녀들이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주위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물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반응에 관계없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방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연구도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 400명을 유의 표집 하였다.

연길 시에는 조선족 초등학교가 10곳 있는데 그중 2곳은 한족, 조선족 혼합 초등학교이며 전체 조선족 초등학생은 약 8500여명이다. 4, 5학년 학생은 2500(29%)명 남짓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 중심에 위치한 두 곳 학교와 시 변두리에 위치한 두 곳 학교를 선정하여 각각 100부씩 배부하였으며 이는 전 시 4, 5학년 학생수의 16%를 차지한다.

배부한 설문지 400부 중 회수율은 97.5%(390부)이고 불성실한 응답을 했거나 결측으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한 5부를 제외한 385(98.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4, 5학년 학생이고 그 중 남학생이 168명(43.6%), 여학생이 217명(56.4%)이었다.

2. 연구절차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6월 23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설문지는 부모양육태도척도, 자아존중감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4곳 학교의 심리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질문지의 기재 방법을 설명한 후 배부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400부에서 15(3.6%)부를 제외한 총

38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Willem A. Arrindell and AstaA. Engebretsen.(2000)가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my memories of upbringing’의 스웨덴 동의어인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인 EMBU-short척도로, 유미영(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EMBU(Arrindell et al, 2000)척도는 총 23문항이며 애정(emotional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등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거부와 과보호 하위요인의 문항은 역 채점하며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부의 양육태도 중 거부 .77, 애정 .75, 과보호 .61, 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78, 애정 .77, 과보호 .62이었으며, 전체 신뢰도에서 부는 .74이고 모는 .77이었다.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안정적으로(Gliem & Gliem, 2003)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라 분류한 문항번호,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

하위요인	문 항 번 호	신뢰도	
		부	모
거부	1*, 4*, 7*, 13*, 15*, 16*, 21*	.77	.78
애정	2, 6, 9, 12, 14, 17, 19, 23	.75	.77
과보호	3*, 5*, 8*, 10*, 11*, 18*, 20*, 22*	.61	.62
전체		.74	.77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셨다’, ‘나는 집안의 말썽꾸러기로 대우 받거나 희생양 취급을 받았다.’ 등이 있다. 거부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애정에 관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등이 있다. 애정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랑을 받는다고 지각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과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어머니)가 걱정을 조금 덜하시면 좋겠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 건건 간섭하셨다’ 등이 있다. 과보호 점수가 낮을수록 사랑을 받는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문항 가운데 척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2개 문항(5, 8번)을 제외한 8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문항 5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 별로 없다.’이고 문항 8은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 이 2개 문항에서 ‘별로 없다, 좀 더 ~으면 좋겠다’는 이분법적인 대답을 선호하는 중국 아동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확실한 측정을 위해 제외하였다. 2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75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라 분류한 문항번호,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Cronbach α)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긍정적	1, 2, 4, 6, 7	.72
부정적	3*, 9*, 10*	.78
전체		.75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총 28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응답은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국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총 22문항)와 비교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1개 문항(8번)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과제난이도 .85, 자기조절 효능감 .85, 자신감 .82였고 전체 신뢰도는 .9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차원과 하위영역, 그에 따른 문항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과제난이도	1, 4*, 7*, 10, 13, 16*, 19*, 22, 25, 27	.85
자기조절 효능감	2, 5, 11, 14, 17, 20, 23, 26, 28	.85
자신감	3*, 6*, 9*, 12*, 15*, 18*, 21*, 24*	.82
전체		.92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예: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며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문항 예: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자신감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학생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문항 예: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양육태도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산출하였다.

셋째, 모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양육태도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산출하였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재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를 살펴보고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며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를 살펴보고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1.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IV-1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부양육태도	.30*	-
학업적 자기효능감	.53*	.33*

* $p < .01$

위의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 = .30, p < .01$),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r = .53, p < .01$). 아울러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 = .33, p < .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양육태도의 효과와 이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1-1. 남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IV-2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부양육태도	.37*	-
학업적 자기효능감	.63*	.29*

* $p < .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 = .29, p < .01$).

표 IV-3. 자아존중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부양육태도	.69	.18	.28	3.85**
		$R = .29$ $R^2 = .08$ $\Delta R^2 = .08$ $F_{(1,165)} = 14.82^{**}$				
2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23	.05	.36	5.00**
		$R = .32$ $R^2 = .10$ $\Delta R^2 = .10$ $F_{(1,165)} = 26.51^{**}$				
3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11	.03	.21	3.40*
		학업적 자기효능감	.13	.01	.57	9.37**
		$R = .66$ $R^2 = .44$ $\Delta R^2 = .30$ $F_{(2,164)} = 64.12^{**}$				

* $p < .01$, ** $p < .001$

위의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부양육태도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단계). 다음으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부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벨(Sobel) 검증 결과, 통계치가 3.68($p < .001$)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1-2. 여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부양육태도	.22*	-
학업적 자기효능감	.44**	.35**

* $p < .01$, ** $p < .001$

위의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간의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전체 집단의 상관($r = .33$, $p < .001$)에 비해 다소

높은 것($r=.35, p<.00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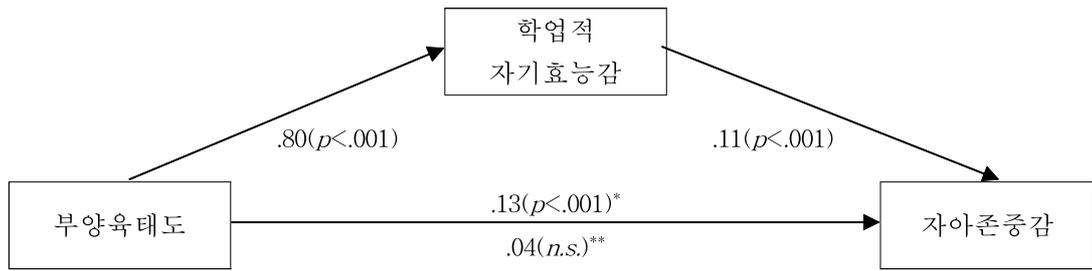
표 IV-5. 자아존중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부양육태도	.80	.15	.35	5.52**
			$R=.35$	$R^2=.12$	$\Delta R^2=.12$	$F_{(1,215)}=30.43^{**}$
2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13	.04	.22	3.22*
			$R=.22$	$R^2=.05$	$\Delta R^2=.05$	$F_{(1,215)}=10.39^*$
3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04	.04	.07	1.03
		학업적 자기효능감	.11	.02	.41	6.39**
			$R=.45$	$R^2=.20$	$\Delta R^2=.15$	$F_{(2,214)}=26.60^{**}$

* $p<.01$, ** $p<.001$

위의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B=.18,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05, n.s.$).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B=.11, p<.001$)으로 나타나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1986)법을 통해 확인된 여학생 집단에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매개변인 투입 전 회귀계수

** 매개변인 투입 후 회귀계수

그림 IV-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표 IV-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sobel test	부트스트랩(bootstrap) [†]			
	매개효과 계수	표준오차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99% 신뢰구간)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99% 신뢰구간)
.09*	.09	.02	.04	.15

* $p < .001$

[†] resample size = 5,000

위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 있어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sobel 테스트에 의한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검증에서도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

1)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법의 경우,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Preacher & Hayes, 1986)

2.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IV-7.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모양육태도	.31*	-
학업적 자기효능감	.53*	.33*

* $p < .01$

위의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 = .31, p < .01$),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r = .53, p < .01$). 아울러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 = .33, p < .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양육태도의 효과와 이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1. 남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IV-8.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모양육태도	.40*	-
학업적 자기효능감	.63*	.34*

* $p < .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역시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34, p<.01$).

표 IV-9. 자아존중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1	학업적 효능감	모양육태도	.77	.16	.34	4.67**
			$R=.34$	$R^2=.12$	$\Delta R^2=.12$	$F_{(1,165)}=21.79^{**}$
2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20	.04	.40	5.55**
			$R=.40$	$R^2=.16$	$\Delta R^2=.16$	$F_{(1,166)}=30.85^{**}$
3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11	.03	.21	3.34*
		학업적 효능감	.13	.01	.56	9.00**
			$R=.66$	$R^2=.44$	$\Delta R^2=.28$	$F_{(2,164)}=63.76^{**}$

* $p<.01$, ** $p<.001$

위의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모양육태도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단계). 다음으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앞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모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벨(Sobel) 검증 결과, 통계치가 3.64($p<.001$)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2-2. 여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모양육태도	.20*	-
학업적 자기효능감	.44**	.32**

* $p < .01$, ** $p < .001$

위의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간의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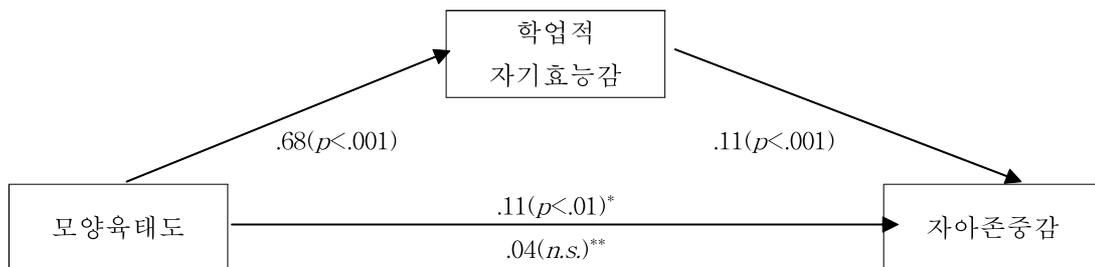
표 IV-11. 자아존중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모양육태도	.68	.14	.32	4.89**
			$R = .32$	$R^2 = .10$	$\Delta R^2 = .10$	$F_{(1,215)} = 23.93^{**}$
2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11	.04	.20	2.98*
			$R = .20$	$R^2 = .04$	$\Delta R^2 = .04$	$F_{(1,215)} = 8.86^*$
3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04	.04	.07	1.02
		학업적 효능감	.11	.02	.42	6.53**
			$R = .45$	$R^2 = .20$	$\Delta R^2 = .16$	$F_{(2,214)} = 26.58^{**}$

* $p < .01$, ** $p < .001$

위의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B=.11,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04, n.s.$).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B=.11, p<.001$)으로 나타나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1986)법을 통해 확인된 여학생 집단에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매개변인 투입 전 회귀계수

** 매개변인 투입 후 회귀계수

그림 IV-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표 IV-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sobel test	부트스트랩(bootstrap) [†]			
	매개효과 계수	표준오차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99% 신뢰구간)	매개효과계수 상한값 (99% 신뢰구간)
.08*	.08	.02	.02	.14

* $p < .001$

[†] resample size = 5,000

위의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 있어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sobel 테스트에 의한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검증에서도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양육태도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매개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중국 연변조선족사회에서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의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 논의 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우미경(2009), 원영희(1991), 장미숙(2008), 쉐 쉐(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키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순점(2005)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허용적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된 자녀들이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주위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물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가 높다는 張雪娜(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지만 어머니의 성별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한다하여도 그 민

족만의 고유한 생활방식이 있으므로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여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황혜자와 최윤희(2003), 陳玉珠(2013), 唐凱晴 외(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양육태도는 여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정적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程學超, 谷傳華, 2001)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더니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초자아가 발달하는 남학생에게 자신을 부모와 동일시하고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는 김혜경(200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학생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면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錢 珍(2008), 張雪娜(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의 차이를 보인다는 이주연(2013), 魏運華(2004), 張雪娜(201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여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학업성적의 향상을 가져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논의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남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있다. 또한, 남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로 양육 할수록 학업성적의 향상을 가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긍정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어 간접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의 성적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비해 새로운 발견이고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연변 초등학생을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교사가 부모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인 양육태도와 개인적 요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의적 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이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등학생이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충분히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양상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4곳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표집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하기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폭 넓은 집단의 표집을 통한 대상을 확대한다면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검사자의 반응태도나 의지가 반영되어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의 평소 모습을 관찰 가능한 교사나 부모님이 응답할 수 있는 척도를 첨가하거나, 일대일 조사 면접법이나, 사례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포함한 질적 연구를 결부하면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중요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학기마다 진행하는 부모교육에 아동의 성별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사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내활동, 집단활동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타당여부를 검토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초등학교들에게 어울리는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나정(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향옥(2002). **해결중심의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대인관계개선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2000).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과 후 집단프로그램**. 한국교육학회지, 2(1).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다솜(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성(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의 질 간의 관계: 자기조절능력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순(201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업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차정은(2003). **교사효능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43.
- 김아영(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학지사.
- 김영선(2010).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3). **초등학생의 HTP 반응특성과 자아존중감,사회성,ADHD와의 상관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한(2015).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초, 중, 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1987).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춘경, 김미화(2005).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아동의 우울감·일상생활스트레스·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 19호.
- 김춘경 외 공저(2002). **아동학개론**. 서울: 학지사.
- 김춘경 외(2004). **유아교육개론**. 파주: 양서원.
- 김혜경(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도영(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2).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영희(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지(2011).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행동억제의 중재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혜경(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형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순점(200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2

- 민서영(2012).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청소년 행복과의 관계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종(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영옥(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금(1999). 모자 가족의 가족체계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8호.
- 박엘리(2009). King's College 런던대학 연구팀 연구결과. 메디컬투데이, 2009.9.11
- 성미옥(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칭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현(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영희(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송현주(2009).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영역별 연구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9(2), 113-126.
- 신정희(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준(2000).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 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 오효선(2008). 어머니의 성격유형이 자녀의 성격유형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미경(2009).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 탐색.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명숙(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영(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영, 홍혜영(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4(4), 915-937.
- 유영주(2000). 가족관계학. 경기: 교문사.
- 윤명주(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초등학생자녀의 또래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희(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분석적 고찰. 교육학연구, 36(3), 65-82.
- 윤하기(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희봉(2003). 정인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1987).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김정규(2012). 청소년의 신체상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Vol. 31, 61-83.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연(2013). 초등학생의 성격유형,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2009). 진로지도가 소득수준별 아동의 진로의식과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설매(2013).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중국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희(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199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수(199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발달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2008). **초등학교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영(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실(201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주(2004). **고교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원식(1975). **교육 환경론**. 서울: 배영사.
- 정원식(1984). **현대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원식(1994). **인간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정정애(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종재(2001). **초등학교 아동의 태권도 수련이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결자 외(2008).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과 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14(2), 24-31.
- 조순애(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의 귀인양식과 우울과의 관계: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2003). **스트로크기법 중심의 교류분석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성(1996).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이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돈(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 및 우울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르맹 뒤글로(2007). **아이들의 행복에너지, 자아존중감**. 서울: 한울림.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자(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맞벌이 여부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유경(1999). 부모 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1998). 느낌쪽지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 공저(2006). 미술치료기법. 서울: 학지사.
- 토니 험프리스(2006). 8살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팝콘북스.
- 하영화(2009).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철(1997).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령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미영(2005).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희(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진(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자아평가, 자아존중감 발달요인,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최윤화(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岑 翠(2005). 中學生學業自我效能感發展特点及其与學業成績、父母教養方式的相關研究. 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陳玉珠(2013). 初中生自我效能感与父母教養方式之間的關係. 社會心理科學, 28(5): 589-593.

- 程學超, 谷傳華(2001). 母親行爲与小學兒童自尊的關係. **心理發展与教育**, (4): 23-27.
- 范乃茹(2010). **父母控制對青少年社會行爲影響的研究**. 中山大學, 碩士學位論文.
- 顧明遠(1990). **教育大詞典(第五卷)**. 上海教育出版社.
- 黃有光(2003). 《東亞快樂鴻溝》評介: 從數字鴻溝到幸福鴻溝. **《互聯网周刊》** 43, 72-73.
- 金河岩, 許偉(2011). 朝鮮族小學生學業自我效能感与父母教養方式的關係研究. **東疆學刊**, 28(2): 83-88.
- 林崇德(1995). **發展心理學**. 人民教育出版社.
- 倪士光, 徐繼紅, 叶霖(2012). 非理性拖延量表的修訂及其与健康行爲的關係: 自我效能的中介作用.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0(5): 603-605.
- 錢 珍(2008). **初中生父母教養方式、學業歸因、學業自我效能感与學業成績的關係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唐凱晴, 鄧小琼, 范方, 龍可, 王鶴, 張焯(2014). 父母教養方式与學業拖延: 學業自我效能感的中介作用.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2(5): 889-892.
- 田芊, 鄧士昌(2011). 積極完美主義對拖延行爲的影響: 自我效能感的中介作用. **中國臨床心理學雜誌**, 19(2): 221-224.
- 楊麗珠, 張麗華(2005). 3-9歲兒童自尊結構研究. **心理科學**, (1).
- 尹紅霞 외(2010). 主觀幸福感与自尊關係研究的現狀及發展趨勢. **泰山學院學報**, 32(4): 141-144.
- 王蓮, 姚本先(2011). 大學生自尊与父母教養方式的關係研究. **牡丹江大學學報**, 20(5).
- 王超超(2010). **初中生自我效能感, 學業情緒与學業拖延的關係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有智, 王淑珍, 歐陽倫(2005). 貧困地區初中生學業自我效能、內部動机与學業成績的關係研究. **心理科學**, 28(4): 826-829.
- 魏運華(2004). **自尊的心理發展与教育**.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張萌, 陳英和(2013). 父母教養方式与拖延: 完美主義的中介作用. **心理与行爲研究**, 11(2): 245-250.

- 張雪娜(2013). 小學生父母教養方式、自尊和社會適應現狀及其關係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朱步冲(2013). 財經綜合報道: 中國式自尊的陣痛与嬗變. 三聯生活周刊.
- 朱智賢(1989). 心理學大詞典.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 t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 al Psychologist*, 28, 117-148.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rody, V. A.(1978). Developmentalplay :A relationship-focused program for children. *Child Welfare*, 97(9), 591.
- Brody,V.A.(1992). The dialogueoftouch: Developmental Play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1), 21-30.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amp; Broadnax, S.(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03-515.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 - 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Emmerich, W.(1962). Variations in the parent role as function of the parent's sex and the child's sex and age. *Merrill-Palmer Quarterly*, 8, 3-11
- Erikson, Erik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242.

- Fishbein, M. & Ajzen, I. B.(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f the self-esteem. In Paul H. Mussen (Ed.).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275-385.
- Medinnus, G. R. and F. J. Curtis(1963).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Self-Acceptance and Child Accepta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7*, 542-44.
- Medinnus, G. R.(1970).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Disturbed Adolescent Chil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5*, 98-105.
- Katkovsky, Walter,(1966). *Parental antecedents of children's beliefs in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hievement situations*. Rockville, Maryland: ERIC.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4)*. New York: Wiley.
- Mecca, A. M., Smelser, N. J. & Vssconcellos, J., Eds.(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yers, D. G. .& Diener, E.(1995). Whois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 10-19.
- Noller, Patricia (1980) 'Cross-gender effects in two-child famili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59-60.
- Noller, P., Seth-Smith, M., Bouma, R. & Schweutzer, R.(1992).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clinic and non 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 101-114.
- Pajares, F.(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4), 543-578.
- Pintrich, P.R. & De Groot E.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50.
- Pyszczynski, T.; Greenberg, J.(1987). Self-regulatory perseveration and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a self-awareness theory of reactive depression. *Psychol Bull*, 102, 122 - 138.
- Schaefer, E. s.(1959).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9.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 424
- Scharff, J. M.(1995).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Jason & Aronson inc. Silverman, W. K., & Nelles, W. B(1989). An examination of the stability of mother's ratings of child fearfulnes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 1-5.
- Schunk, D. H., & Pajares, F.(2001).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A. Wigfield & J.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San Diego: American Press.
- Sears, Robert R ,Eleanor E. Maccoby ,Harry Levin ,Jean Berwick ,Maccoby, Eleanor E ,Levin, Harry.(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IL: Row, Peterson and Company.
- Swann, W. B., Jr., Pelham, B. W., & Krull, D. S.(1989). Agreeable fancy or dis a agreeable truth? Reconciling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82-791.
- Symonds, Percival,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of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cheff, T. J., Retzinger, S. M., & Ryan, M. T.(1989). Crime, violence, and self -esteem: Review and proposals.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165 - 199.

- Schunk, D. H. (1991). Self - 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207-231.
- Tennen, H., & Herzberger, S.(1987). Depression, self-est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Watson,J. D.,& Ramey,C. T.(1972). Reactions to response contingent stimulation in early in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18*(3), 219-227.
- Zhang, Z. Richarde, R. S.(1999). Intellectual and Metacognitive Development of Male College Students: A Repeated Measures Approa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0* No.6, 721-738.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S.(1990). *Students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m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Abstract>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steem: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LI HUA

Major of Consultation an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oi Bo Young

The study identified whether mediation effect varied depending on gender in relation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academic self efficacy. To this end, it came up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 Q1. What is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effect of p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 Q2. What is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effect of m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To verify the two questions, the study did purposive sampling on 400 4th and 5th years at four elementary schools for ethnic Koreans in Yanji, Jilin, China and surveyed them.

It used parenting attitude scale, self-esteem scale and academic self-efficacy scale. SPSS 18.0 program was used for the collected data. The study calculated Cronbach *a* coefficient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and calcula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each variable. It also applied the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proposed by Baron & Kenny (1986) to see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and self-esteem.

The outcom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major variable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self-esteem and academic self efficacy was significant.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the boy group sugges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ll subject groups. In the mean time,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the girl group indica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somewhat lower than that of all subject groups.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ll if parameter conditions were met in the relation among academic self-efficacy,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boys and self-esteem. As a result, parenting attitude significantly affected the self-esteem of boys. Although the academic self-efficacy was put as the mediation variable for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of boys,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no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However,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partial mediation effect as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somewhat declined.

Third, the study verified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girls and self-esteem. Above all, analysis based on the procedure suggested by Baron & Kenny (1986) presented that the girl group had complete mediation. Then, analysis using bootstrap suggested by Preacher & Hayes (2004)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gain. The result stated that i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girl group was found to have complete medi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academic self-efficacy had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boys and girls and self-esteem.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children's self-esteem varied depending on their gender. Therefore,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basic material for parental education to help efficient parenting attitude and promoted academic self-efficacy during primary education period.

<부록>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설문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래의 질문 내용은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틀리거나 맞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낀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항>

1. 한 문제에 한 군데에만 <보기>와 같이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보기>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컴퓨터 게임은 재미있다.				○	

2.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3. 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학교() 학년() 성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6.

지도교수: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이화(ayaoli@naver.com)

※ 아래 각 문장을 읽어 보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버지·어머니의 경우를 나누어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학생은 지금 키워주시는 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번호	문항	아버지/어머니	거의 드물게	때로	자주	대부분
1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3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어머니)가 걱정을 조금 덜 하시면 좋겠다.	부	1	2	3	4
		모	1	2	3	4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것 이상으로 나를 꾸중하시고 매를 때리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5	집에 오면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어머니)께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6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좋은 책을 사주거나 캠프나 클럽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등 내 사춘기 시절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7	아버지(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꾸중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8	아버지(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는 일도 나는 못하게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최고가 되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0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짓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여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1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걱정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2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3	나는 집안의 말썽꾸러기로 대우 받거나 희생양 취급을 받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14	아버지(어머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5	아버지(어머니)는 나보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좋아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6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나를 대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7	아버지(어머니)는 지나친 걱정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8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 건건 간섭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9	나는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정을	부	1	2	3	4

	느꼈다.	모	1	2	3	4
2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야단치고 벌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혹은 외모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아버지 맘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3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좋은 인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4	대부분의 사람들만큼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5	자부심을 가질 것이 별로 없다.				
6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때때로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 그 번호에 √ 표시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4	5
3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1	2	3	4	5
4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1	2	3	4	5
5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1	2	3	4	5
6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7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1	2	3	4	5
9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10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11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2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1	2	3	4	5
1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14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1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18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1	2	3	4	5
19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1	2	3	4	5
20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	2	3	4	5
21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	2	3	4	5
22	쉬운 문제보다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23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1	2	3	4	5
25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2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27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5
2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